

집세 내는 집주인

00청소년문화의집에서 독서모임을 하게 되어 네명의 여중생들과 마주 앉았다. 책 읽은 사람? 조금이라도 읽은 놈들이 반이 채 안된다. 그럼 나는 놓고 올테니 그사이 먼저 책부터 읽어라잉. 아우성치는 놈들을 뒤로 하고 동네 한바퀴 산책길에 나선다. 신도시 옆에 낡은 전형적인 달동네다. 책의 단편들 중에 재개발 이야기를 오늘 수업자료로 써야겠다.

30여분 후 다시 자리에 모여앉았다.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첫마디를 던졌다. “자기 집이 집주인인 사람?” 허, 한명이 자신있게 손을 든다. 설마 했는데, 괜한 걸 처음부터 물어봤나. 동석했던 문화의집 직원이 자기네도 집주인이긴 한데 이 동네는 분담금이 턱없이 비싸서 어차피 집주인도 집 팔고 나가야 한다고 서둘러 토를 달았지만 모임 첫머리부터 위화감이 감도는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다. 애들끼리도 친한 사이인 거 같은데 서로 뜻밖이라는 눈치였다.

‘주인공의 집이 재개발로 헐릴 위기에 놓인다. 오래된 집을 부수고 더러운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게 재개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직접 골목길 개똥을 깨끗이 다 치운다. ‘노력’을 가훈으로 정했던 엄마는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 실तो를 하게 되고 주인공은 가훈을 주제로 만든 가족신문을 꾸겨버린다.’

모임을 마칠 즈음, 자기네가 집주인이라는 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는다.

“그럼, 재개발되면 너희는 다 떠나야 돼?”

“재개발되면 집세도 훨씬 뿔텐데, 당근이지.”

“집세? 집주인이 내는 게 집세 아니야? 우리도 집세 내는데...”

“... 그럼 너네도 집주인이 아니잖아. 집세는 세입자가 내는 건데.”

아이들의 왁자지껄 비난 속에 계급 연대는 순식간에 복구되었다.

에잇, 대한민국의 사회시간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!

글 · 최경송 keychoe@hanmail.net

